

■ 특집1 -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 ■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

엄한진

I. 서론

지난 6월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사라 헤가지(Sarah Hegazi)가 30살의 나이로 망명지 캐나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2017년 9월 22일 카이로에서 열린 레바논 출신 인디밴드의 콘서트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무지개 깃발 사건(rainbow flag incident)’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투옥된 그는 석방 후 “성적 일탈을 부추킨다”는 비난에 시달리다가 이집트를 떠났다. 2018년 발표한 글에서 헤가지는 3개월의 구금 기간 중 전기고문을 당했고 심리적인 고문도 당했다고 했다.¹⁾

이집트에서 동성애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랍의 봄’의 혁명세력을 누르고 집권한 군부 출신 알 시시 정권에서 성소수자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집트 인권단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92명의 성소수자가 체포되었다. SNS에 헤가지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성소수자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곧 대중의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났고 혐오발언과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412-002)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1)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gypt-lgbtq-activist-sarah-hegazi-suicide-traum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정부는 헤가지 등 성소수자들을 투옥하게 된다. 캐나다로 망명하고 2년이 지난 후 헤가지는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들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실패했어. 나를 용서해줘. 내 친구들에게, 여행은 잔인했고 그것을 견디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나를 용서해줘. 세상에게,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잔인했어. 그러나 용서할게.”²⁾

이 사례는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서도 성소수자 문제가 사회갈등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중동발 뉴스로는 이 사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동의 소수자에 관한 지역 내외의 논의는 압도적으로 종교적, 종족적 소수집단의 문제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문제가 이슬람과 연관지어 부각되는 양상을 띠어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 차원의 전형적인 소수자 논의와 달리 집단의 문화 차원의, 문명 담론에 가까운 논의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구도는 제국주의 시대에 그 연원을 둔 서구의 지배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족이나 종파의 문제는 아랍·이슬람사회가 지닌 통합의 한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기독교 소수집단의 문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입의 명분으로,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이슬람사회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정교분리주의와 양성평등이 외부세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회를 압박하는 핵심적인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동 소수자 논의의 구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난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성소수자 및 국제이주민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 소수자들이 처한 현실 역시 한국 등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위해 종교적·종족적 소수자, 성소수자, 국제이주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과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2) <https://www.nytimes.com/2020/07/16/opinion/culture/mashrou-leila-fan-suicide.html>,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II. 종교와 종족 중심의 소수자 논의

중동 인구의 대부분은 수니파와 시아파에 속하며 이란, 터키, 이스라엘 등 비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랍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종교적인 소수집단으로 콥트교, 그리스 정교, 그리스 가톨릭, 마론파, 중동 라틴교회 등 기독교 교단, 그리고 알라위, 드루즈 등 이슬람의 소수집단이 있다.

종교보다 더 다양성이 심한 종족적 소수집단에는 쿠르드인, 체르케스인, 투르크멘인 등 비아랍 수니파, 그리고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남수단의 기독교도와 애니미즘 신자와 같이 비아랍이자 비이슬람에 해당하는 집단이 있다.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과 함께 콥트인들은 지역에 오래 거주해온 소수자들이며, 체르케스인이나 유럽 출신 유대인들은 보다 늦은 시기에 중동 지역으로 이주한 소수종족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 소수종파들이 유럽의 중동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쿠르드족은 서로 다른 국가들에 포함되면서 소수종족이 되었다.

카스텔리나와 카바노(Castellino & Cavanaugh)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종교적 소수집단이나 무슬림에 속하는 종족 집단과 함께 수적으로 다수인 소수자(majoritarian minorities), 정치적 소수자(political minorities), 뒷에 걸린 소수자(trapped minorities) 등 세 가지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³⁾ 그의 유형화에서 다수적인 소수자는 바레인의 시아파와 같이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의미한다. 정치적 소수집단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적으로도 소수인 경우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나 이란의 수니파, 그리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의 수니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뒷에 걸린 소수자는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발루치인, 터키, 이란, 이라크의 쿠르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인의 경우처럼 한 나라의 소수민족과는 조금 다르게 둘 이상의

3) Castellino, Joshua and Kathleen A. Cavanaugh., *Minority Rights in the Middle Eas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나라들에 퍼져있으면서 주류 민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대 이후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되면서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집단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적인 상황이 중동이나 아랍세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 러시아, 서유럽, 동유럽을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중동보다는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이 조금은 더 인종 전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중동 지역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원적인 종교 상황은 한국도 덜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교·종파 간 갈등도 적지 않다. 그런데 유독 중동지역이 종교 및 종족 간 갈등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다원적인 현실이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근거가 없지는 않다. 수니파와 시아파,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에 힘입어 종교·종족 문제가 이 지역의 핵심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중동의 종족적, 종교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유럽의 이주민 문제와 달리 한 사회가 지닌 통합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기보다는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인 측면, 국가 간 분쟁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수 종교 및 종족이 겪는 차별에서 중동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각종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전의 백성(people of the book)으로서 보호를 받는다.⁴⁾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겪는 차별에 비할 바는 아닌 것이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규모가 작은 이슬람 또는 기독교의 소수 종파가 겪는 차별이다. 이라크에서는 기독교, 예지디교, 바하이교, 조로아스터교, 만다야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와 시아파가 혼합된 카카이교 등이 종교로 인정받지 못해 종교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에는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중요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라크와 중동의 혐오발언을 저지하기 위한 바그다드 선언>이 발표되기도

4) 이슬람은 사회를 두 개의 종교 집단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즉 무슬림과 비무슬림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무슬림은 또한 기독교인, 유대인, 조로아스터교인 등 이슬람의 지배체제에서 보호를 받는 ‘경전의 백성’과 비신자로 구분된다.

했다.⁵⁾ 한편 종족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등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자행하는 폭력에 시달려왔다.

바하이교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특히 이란에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바레인의 시아파는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수니파 정권으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비유되는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별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동부와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시아파에 대한 차별일 것이다. 시아파는 군인이 될 수 없고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지 못한다. 시아파 이외에도 수피 교단 역시 차별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알 아크담(Al Akhdam)으로 불리는 예멘의 한 종족은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이지만 시민으로, 심지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집단이다.

수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집트의 콥트인들이 겪는 차별 역시 중동의 대표적인 소수자 문제이다. 카이로의 콥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종족적인 측면에서 소수자인 이들은 폭력, 두려움, 위축된 행동의 양상을 보인다. 기독교인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내재화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고 이 두려움은 오랜 기간 경험해온 자신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직·간접적인 폭력과 차별이 만든 것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주변을 경계하면서 얘기하기, 속삭이기, 민감한 단어 사용을 삼가기, 예들러서 얘기하기 등의 관행을 낳은 것이다.⁶⁾

한편 중동 국가들은 여성의 지위에 관한 국제사회의 주요 지표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점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차별과 제약이 심하며 고용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고용률이 낮은 상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특수성이 소수자, 차별, 증오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여성이 소수자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현재 중동의 사례는 여성이 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의 소수자 관련 이슈 중 히잡이나 명예살인 등 여성 관련

5) Masarat Foundation for cultural and Media Development, *Declaration of Baghdad To counter hate speech on Iraq and the Middle East*, 2016.

6) Ha, Hyun Jeong, "Emotions of the weak: violence and ethnic boundaries among Coptic Christians in Egypt",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40, No. 1(2017), pp. 133-151.

이슈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2017-2019년 이란에서 진행된 히잡 착용 의무화 반대시위가 주목을 받았다. ‘엔 할라브가의 소녀’로 알려진 이란 여성 비다 모바헤드(Vida Movahed)가 시위현장에서 히잡을 막대기에 묶어 깃발처럼 흔들었고 이 행위로 인해 체포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⁷⁾

문제는 이러한 논의 구도가 일반적으로 소수자 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소수자, 이주민 문제가 은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하면 떠올리게 되는 성소수자나 이주민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리아 난민과 같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가 간헐적으로 조명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동지역 소수자에 관한 논의는 개인보다 집단,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 간 관계, 보편적인 시민권보다 원초적인 차이가 강조되는 양상을 띤다.

III. 은폐된 소수자들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중동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처럼 중동에도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중동은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못지않게 이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노동현실 중 가장 차별이 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여성의 열악한 고용기회 및 고용조건과 함께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라고 할 수 있다.

1) 성소수자

먼저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자. 중동 지역은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당시 유럽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제약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유럽의 동성애자 문인들이 중동을 찾았다는 기록도

7) https://en.wikipedia.org/wiki/2017%E2%80%932019_Iranian_protests_against_compulsory_hijab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있다. 1845-1846년 모로코 학자 무함마드 알 사피르가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는 그곳의 성 행동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한다.⁸⁾ “파리 남성의 성적 유희, 로맨스, 구애 대상은 여성으로 제한된다. 소년이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행동을] 꺼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행동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구분이 미약했던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성인 남성이 10대 소년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다. 물론 이런 호감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고 절제가 요구되기는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취향이 놀랍거나 이상한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관심을 가진 남성을 동성애자라는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종교 일반이 그렇듯이 이슬람 율법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했다. 다만 이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훨씬 관대하게 다뤘다는 점이다.⁹⁾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지금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근대 이전보다 엄격해졌고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에서는 서구의 영향 이전 자신들의 관용적인 전통이 살아있기도 하다.

드로르 제에비(Dror Ze'evi) 역시 유사한 시각에서, 의학, 문학, 예술 등에서 보여지는 당시의 성 담론이 쾌락 기반의, 종교나 윤리에 의한 제약이 없는, 그러나 물론 남성 중심의 양상을 띠었다고 설명한다. 일부 성적 행위는 경전이나 남성이 만든 법에 근거해 금지된 경우도 있지만 이 행위들이 일탈이나 비정상 또는 반자연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개입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에로틱한 소설이나 동성애를 다룬 작가 중 종교계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동성애도 용인했던 성 담론이 위축되는 것은 서구화 및 근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스만 제국은 일련의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데 특히 젠더와 섹슈얼리티 분야의 변화가 중요했다. 의학, 연극,

8) 크로익스, 제프리 디스티 외, 『계급, 소외, 차별』 (서울: 책갈피, 2017), 202쪽.

9) 크로익스, 같은 책, 202-211쪽.

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근대적인 성 담론이 자취를 감추고 유럽의 성 담론이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¹⁰⁾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기행문의 역할이 컸다. 18세기부터 유럽의 여행가들은 동성애에 관한 오스만 제국의 규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행문에서 오스만 제국의 동성애는 문화적, 정치적 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다루어졌다. 즉 오스만 제국의 문화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자신들의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로 묘사하는, 동성애의 관행을 근대성의 실패나 제국의 정치적 허약함에 연관짓는 유럽인들의 시각에 직면해, 제국의 엘리트들은 오스만 사회의 성적 콘텐츠를 검열하는 식으로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규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성 담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제 성 담론은 텍스트의 영역에서 추방되어 개인들 간의 은밀한 영역으로 숨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오스만 사회의 윤리를 만들었다. 이제 이성애중심주의가 규범이 되고 동성애 등 모든 다른 성적 욕망과 실천은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23년 터키공화국 탄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서구화는 성 담론의 침묵과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사고를 더 심화시켰다. 일당 지배의 민족주의적 케말 정권은 언어, 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억압하는 기조를 강화시켜 나갔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에서 사용된 아랍-페르시아 문자를 ‘새롭고 정화된’ 터키어의 라틴 문자로 대체한 1928년 언어 개혁은 터키 국민들이 오스만 제국 시절 동성애 전통에 관한 기록들을 접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오스만 시대의 성 담론과 단절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끝에 현재 절반 정도의 중동 국가들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며 심지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종교에 따른 차이도 찾기 힘들다. 수니파 무슬림, 콥트교, 마론파 등 종파를 막론하고 동성애에

10) Ze'evi, Dror, "Hiding Sexuality: The Disappearance of Sexual Discourse in the Late Ottoman Middle East", *Social Analysis*, 49(2)(2005), pp. 44-45.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반인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 구성원 중 동성애자가 있을 경우 명예살인을 통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도 한다. 2019년 2월 21세의 알제리 의대생 아실 베랄타(Assil Belalta)가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범행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기숙사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벽에는 그의 피로 쓰여진 “그는 게이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정부나 언론은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알제리에서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종교 및 전통의 해석을 근거로 한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338조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2달-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에는 수상 아흐메드 우야이야(Ahmed Ouyahia)가 동성애 관련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하기도 했다. “알제리는 자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보편적인 변화 추세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보다 관용적이었던 전근대의 전통보다는 근대 이후 서구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에 가깝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알제리의 한 장관은 “세속주의자와 동성애자를 상대로 한 전쟁이 IS에 대한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¹¹⁾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고려할 때 알제리의 동성애자들은 벨라티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에서는 동성애가 범죄이기 때문에 지원단체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알제리에서 성소수자는 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커밍아웃한 이들은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하며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한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된다.

위에서 소개한 사라 헤가지의 나라 이집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이집트의 성소수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국제기구들이 이집트를 활동의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엄두를 내지 못하며

11) <https://voiceofsalam.com/2019/03/12/alouen-shares-the-reality-of-homophobia-across-algeri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인터섹스 협회’(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ILGA)는 이집트를 세계에서 동성애혐오가 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¹²⁾ 알 시시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에 대한 탄압을 가하면서 그 속에 성소수자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언론 또한 성소수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무지개깃발사건’으로 65명의 성소수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혐오발언이 더욱 심해졌다. 이 사건 직후 미디어, 정치인, 종교지도자들은 성소수자 혐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미디어는 집요하게 정부에게 성적 도착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집트 최대의 모스크인 알 아즈하르는 이 사건을 ‘신성한 법과 인간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도덕적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가 이슬람과 기독교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 역시 모든 미디어에서 동성애가 표현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의회에서도 사타르 의원이 67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집트에서 동성애는 폭력이나 테러리즘보다 더 위험하다고 언급했다.¹³⁾

이스라엘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의 억압적인 현실을 은폐시키는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핑크워싱’(pinkwashing)의 혐의를 받기는 하지만 주변 아랍국들과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커플의 동거나 성 전환이 허용되고 있으며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은 동성애혐오와 팔레스타인인들을 혐오하는 인종주의를 함께 겪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페미니즘 단체인 아스왓트(Aswat)의 창시자

12) Equal Rights Trust, *A Past Still Present: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Egypt*, The Equal Rights Trust Country Report Series 12, London, December 2018, p. 290.

13) *Ibid.*, pp. 291-294.

마자위(Mazzawi)는 이러한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운동의 특수성을 국가가 없다는 특수한 조건으로 설명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삶을 살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요구한다면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적대적인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국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민사회 역시 이들에 대한 억압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소수자 공동체의 경우에도 팔레스타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보다 국가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자위는 이스라엘 성소수자 공동체 등 외부 세력이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에서 진행되어온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것, 더 나아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초래한 점령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산이 낳은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

특히 2019년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세계 성소수자 공동체에 특별한 한 해였다. 2019년 7월 한 10대 성소수자가 텔아비브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단체 건물 밖에서 형제에 의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주 후 이를 규탄하는 팔레스타인 최초의 성소수자 시위가 하이파에서 열렸다. 2019년 5월에는 댄서이자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리더 중 하나였던 아이만 사피에(Ayman Safieh)가 하이파 남부 해안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말에는 성전환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스라엘 국회를 통과했다.

보다 최근에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으로 참깨 소스인 타히니를 제조하는 알 아르즈(Al Arz)의 소유주 줄리아 자헤르(Julia Zaher)가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를 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회사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7월 1일 이 단체가 트위터에 그녀의 기부에 대해 감사를 표한 직후 ‘타히니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논쟁이 진행되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 회사 제품들을 매대에서 빼는 장면을

14) <https://www.972mag.com/lgbtq-palestinians-haifa-queer/>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답은 동영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¹⁵⁾ 이 사건이 그동안 관심 밖에 있거나 금기시된 성소수자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10여명의 이스라엘 외교관들이 알 아르즈를 지지하는 의미로 약 600 파운드의 타히니 소스를 구매하기도 했다.¹⁶⁾

2) 이주민

이주민 문제 역시 중동의 보이지 않는 그늘 중 하나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노동이주를 많이 떠나는 지역이자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걸프만 산유국들이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떠나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주로 북아프리카인들이 유럽으로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이주민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석유, 이슬람 또는 종파주의 등에 비해 정치적인 가치가 크지 않아서일 것이다.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출신 국가들이 중동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비중이 크지 않고, 인근 아랍 국가 출신 이주민들은 같은 아랍 민족이면서 동시에 대부분 분쟁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으로서 산유국들이 연대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이나 북미의 이주 현상에 비해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으로의 국제이주는 1973년 석유파동 직후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이집트, 예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수단 등 인근 국가들이나 인도, 파키스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이 이주의 물결로 인해 1975-198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경우 인구가 2 배로 늘어날 정도였다. 1980년대 초부터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도 늘어났다. 그러다가 1985년 유가가 급락하고 석유 및 건설 분야 등에서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특히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줄어든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시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여성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

15) <https://www.nytimes.com/2020/07/15/world/middleeast/tahini-gay-israel-boycott.html>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16) <https://76crimes.com/2020/08/07/pro-lgbtq-arab-firm-wins-israeli-support-against-boycott/>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그 결과 아랍세계 출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집중되는 등 노동시장의 ‘인종화’(raci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¹⁷⁾

보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동기와 함께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이주 현상이 중요해졌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중동에 사는 이주민의 수는 2500만 명에서 54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부분적으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내전이나 국가의 위기를 겪은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이주에 따른 것이었다. 같은 시기 이주민의 증가분 중 분쟁에 따른 이주가 60%, 노동이민이 40%를 차지하였다.¹⁸⁾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랍세계 출신 난민 876만 명 중 아랍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수가 250만 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이는 유럽으로 이주한 126만 명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2020년 현재 2억 6천만 명 수준인 중동지역 전체 인구 중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5년 7%에서 2015년 13%로 크게 늘었다. 이 비율은 미국과 함께 국제이주민이 선호하는 유럽 국가들의 이주민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동 지역의 이주민은 크게 노동이주민과 난민으로 구성된다. 걸프만 산유국의 경우에는 이주민의 비중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이 이 지역의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인구의 30-40%가 이주민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경우에는 난민과 그 후손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터키나 이란과 같이 전통적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낮은 나라들도 있다. 물론 터키는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주민의 비율이 다소 늘어났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건설, 가사노동, 민간 부문, 소매업 등 민간부문에 종사하며 임금이 낮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이들은 ‘카팔라’로 불리는 후견인 제도로 인해 고용주 개인에 철저히 예속되며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심지어 해당

17) Jureidini, Ray, *Migrant Workers and Xenophobia in the Middle Eas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Identities, Conflict and Cohesion Programme Paper No.2, December 2003.

18)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6/10/18/middle-east-s-migrant-population-more-than-doubles-since-2005/>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국가를 떠나고자 할 때도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¹⁹⁾ 인권이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한국보다도 조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농업, 성산업, 가사노동과 같이 국가와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조건이 더 열악하고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성도 더 크다. 또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나 국교가 존재해 다른 종교들이 차별을 겪는 지역에서 비무슬림이나 비수니파 이주민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²⁰⁾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노동이주민 등 일반적인 이주민에 비해 더 열악하다. 특히 같은 아랍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아랍인 난민과 달리 비아랍 또는 흑인으로 간주되는 난민들은 인종주의적인 차별에 시달린다.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전형적인 아랍세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 출신 이주민이 많은 이집트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난민 신청자의 수는 2010년대 이후 확연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년 40,000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 수치가 2016년이 되면 179,000명으로 늘어나고 2018년 8월에는 233,045명을 기록한다. 이중 절반 가량은 시리아인들이었다. 이 수치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70,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제외된 것이다.²¹⁾ 난민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다. 평등권동맹(Equal Rights Trust) 연구원이 수단 출신

19) <https://www.jacobinmag.com/2020/07/gulf-states-political-economy-saudi-arabia-qatar-uae>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20)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decl_fs_92_en.pdf (검색일: 2020년 8월 15일)

21)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팔레스타인 출신은 난민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부재로 인해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에게 법률 지원,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역시 대상 지역이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가자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집트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Equal Rights Trust, op. cit., p. 247.

난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결과는 이들이 겪는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²²⁾

“첫날부터 매일 나는 차별에 직면해야 했다. 사람들은 늘상 나의 검은 피부색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그들은 나를 ‘하인’과 같은 경멸적인 호칭으로 불렀고 아무 이유없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그저 내가 흑인이고 수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이집트인들의 억양을 배우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작업장에서든 대중교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차별을 받았다. 하루는 기차 승객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좌석에 앉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늘상 ‘흑인, 초콜릿’ 등으로 불렀고 나와 내 아이들에게 그들의 개를 풀어 위협했다. 그래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다. 내가 듣는 말들은 혐오로 가득차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집트인이 아니며 우리의 아랍어 억양이 그들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나의 출신지역을 소말리아라고 말하면 그들은 혐오가 담긴 말을 퍼붓는다. ”너희들 아직 배고프니?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겨우 돌볼 수 있을 뿐이야.”

불황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방조치는 중동 지역 이주민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이다. 알제리에서는 매년 수천명의 사하라 이남 출신

22) *ibid.*, pp. 243-244.

이주민들이 강제추방되고 있다. 2014년 1,340명에서 2017년 9,300명으로 늘어났고 가장 상황이 안 좋았던 2018년에는 26,000명이 추방되었다. 이들 중 40% 정도가 사하라 사막에 버려졌다고 한다. “우리는 버스에 실렸고 음식이 제공되지 않고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진 상태로 사하라 사막에서 30km를 걸은 후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 [알제리에 인접한] 니제르 북부 도시 아가데즈에 도착했다.” 말리, 감비아,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방되었다.²³⁾

분쟁이 잦은 중동 지역의 경우 이주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난민이다. 이들은 이주 과정이나 체류 조건의 문제와 함께 증오범죄에 노출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중동 각지에 설치된 시리아인 난민촌을 겨냥한 비방과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들을 다시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난민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이를 토대로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반감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진다. 첫째, 경제 상황의 악화이다. 시리아 난민의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로 인해 실업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난민이 찾게 되는 비공식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둘째, 치안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터키에서는 쿠르드 무장세력이나 이슬람 세력이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셋째, 레바논의 경우처럼 시아파가 많은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기존의 종파 간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이들에 대한 반감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²⁴⁾

IV.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

23)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skin-colour-crime-afri-can-migrants-algeria-181222084531701.html>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24) <https://futureuae.com/en-US/Mainpage/Item/3292/mutual-hatred-in-citement-motives-against-syrian-asylum-in-the-middle-eas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1) 소수자 논의구도에 대한 설명

중동 국가들 내부의 다양성과 갈등은 중동, 아랍, 이슬람으로 인식되는 주류적인 이미지 속에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식민지 시대 피지배집단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도 외세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세계적인 반이슬람 분위기로 인해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중동 및 이슬람 사회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 계급 등 위계구조, 내부의 다양성, 내부의 소수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부나 외부 모두 관심이 극히 부족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국의 소수집단의 문제가 많은 경우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개입하는 빌미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소수자 문제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다.²⁵⁾ 그리고 정치적 도구로 선택된 것은 종교와 종족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갈등은 종교적인 성격의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수십년 간 중동지역에서 종교나 종파주의가 작동한 방식은 매우 다양했고 서로 다른 양상을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해왔다고 인식되고 종파, 종족, 부족에 기반을 둔 다수의 사회문화적 세계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규정되었다.²⁶⁾ 특히 민주주의 및 국민국가 건설의 실패가 이러한 이미지를 설득력있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집단의 범주가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경직된, 통합이 불가능함을 함축하는 범주들로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종교, 종족으로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파 개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동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종파 개념은 역사적으로 내용을 부여받아야 하며 다른 내적, 외적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의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25)Kumaraswamy, P. R., "Problems of Studying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Alternatives: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2, No.2(2003), p. 243.

26)Joseph, Suad, "Sectarianism as Imagined Sociological Concept and as Imagined Social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0, No. 4(2008), pp. 553-554.

폭력적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파와 종족 집단에서 안전을 구하도록 한다.²⁷⁾ 중동 지역에서 종족 및 종파가 국가를 대신하고 군대를 대신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유산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다.²⁸⁾

2) 난점

중동지역의 경우, 종족 및 종교 집단과 달리 성소수자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소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인 혐오발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제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수자 인권의 측면에서도 중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유럽이나 미국 역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소수자 담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제국주의의 기제라는 혐의를 받아 위축되기도 한다.

① 혐오발언 대 표현의 자유

중동 지역에는 미디어, 인터넷, 국가정책 등에 혐오발언이 확산되어 있다. 혐오발언의 주제로는 반유대주의, 이슬람혐오증,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증오와 박해 등을 들 수 있다. 혐오발언의 주요 소재인 성, 인종, 종교 중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이와 함께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여성, 그리고 다양한 그밖의 타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국가별로 보면, 레바논의 경우에는 특히 종교적인 증오를 자극하는 혐오발언의 사례가 많다. 요르단은 시리아 내전으로 요르단에 온 난민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반기독교적 혐오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리아에서는 여성과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 종교적, 정치적 적대그룹을 겨냥한

27) Peteet, Julie, "Imagining the 'New Middle East'",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0, No. 4(2008), pp. 550-552.

28) 카우쉬는 중동에서 종파적인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게 된 원인으로 국민국가 의 취약성, 기존에 존재해온 종족적·종파적 분할, 2003년 이라크 침공,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민중봉기에 이어진 권력의 공백 등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Kausch, Kristina, "Identity Politics and Regional Order in the Levant", *Uluslararası İlişkiler*, Volume 15, No. 60(2018), pp. 21-29.

혐오발언이 주를 이룬다.²⁹⁾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 “‘They Are Not Our Brothers’: Hate Speech by Saudi Officials”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다른 종교, 그리고 시아파 등 수니파 이외의 이슬람 종파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용인하거나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³⁰⁾

그런데 중동에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혐오발언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이제 공론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종교적인 교리나 견해 차이가 대립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³¹⁾ 그런가 하면 역으로 혐오발언 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요르단에서는 혐오발언 관련 법의 개정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요르단의 2015년 사이버범죄법 개정안은 혐오발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한편 최근 혐오와 증오범죄에 관한 논의는 서구의 이슬람혐오증에 의해 독점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심지어 중동 내부에서도 이슬람을 비난하는 것이 증오범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인도인의 이슬람혐오 트윗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물론 중동 사람들의 아시아인 혐오증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자들에 대한 인종주의를 잊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중동 내부에서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중동 외부에서의 이슬람혐오증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05년 마호멧을 풍자한 만평이 유럽 잡지에 게재되자 이슬람권 전역에서 격렬한 반응을

29)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resources/publications/saving-the-news/hate-speech-arab-media>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30)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events/hate-speech-saudi-arabia/>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31) <https://www.brookings.edu/events/the-challenge-of-minority-rights-in-a-changing-arab-world/>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32) <https://cpj.org/2018/02/changes-to-jordans-hate-speech-law-could-further-s/>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보인 것이 이 점을 잘 보여준 바 있다.³³⁾ ‘마호멧 만평사건’은 또한 표현의 자유 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유럽과 중동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에 대한 침해를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만평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옹호하는 진영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실상 그들의 반이슬람적, 인종차별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⁴⁾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슬람을 염두에 둔 모독죄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슬람의 대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IS가 테러를 저질렀다면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이슬람 수호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이 본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아랍세계의 경우에도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6개 국가의 정부와 미디어가 공동으로 채택한 ‘아랍세계 미디어 자유선언’은 국가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는 증오, 불관용, 종파주의를 척결해야 할 직업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⁵⁾

② 인권담론의 딜레마

소수자에 우호적인 담론의 확산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인권 담론이 지닌 딜레마이다. 즉 이 분야에서 중동 지역을 압박하는 유럽 자신도 성소수자나 이주민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추방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알제리 외무장관은

33) 2005년 9월 30일 덴마크 보수일간지 율란트-포스텐(Jyllands-Posten)에 이슬람을 창시한 예언자 마호멧을 테러리스트로 풍자한 그림 등 12장의 만평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 만평문제가 세계적인 사안이 되었고 예상되었던 대로 각지에서 이슬람신자들의 격한 대응이 잇따랐다. 유럽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충돌하였다.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2011).

34) 엄한진, 같은 책.

35) Mendel, Y. T., Momani, N., Ewedah, B., Bouchetob, S., *Addressing hate speech and racism in the media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 A review of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approaches*, EU Medmedia Report, 2018.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중동 지역에서 소수 종교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 유럽에서도 무슬림 등 소수 종교 신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무슬림들은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고 해당 사회의 전통과 순수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동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종교와 연관된 인종주의 범위가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연유로 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를 닮은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 문제 역시 서구에서도 최근까지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서구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주민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보다는 이슬람 대 기독교, 이슬람의 여성, 종족-종파 분쟁이 중동 및 이슬람 세계 비판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중동의 소수자 문제 거론이 이슬람으로 표상되는 이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이슬람혐오증의 근거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난점이다.

③ 제국주의의 혐의

성소수자 분야의 경우에는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기획의 일환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성소수자 논의가 최근 활성화된 것에 미국과 유럽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대중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페미니즘은 ‘트로이의 목마’로 묘사되는 등 제국주의의 도구로 인식된 경험이 있다. 식민지 페미니즘(colonial feminism)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슬람주의 페미니스트(Islamic feminists)은 여성과 이슬람의 대립은 제국주의 세력이 만든 탓이고 아랍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슬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의 저발전이 기인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에 제국주의 혐의를 부여해온 전통을 계승해 보다 최근에는 서구의 동성애 논의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신식민주의적 함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조셉 마사드(Joseph A. Massad)는 중동에 레즈비언과 게이 정체성이 도입되는 것을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과

신식민주의의 사례로 평가하고 ‘게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³⁶⁾ 이 개념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아랍세계에 서구 스타일의 레즈비언과 게이 담론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중동의 지배세력은 동성애 사안을 자신들이 타락한 서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로 활용하기도 한다. 즉 동성애자에 대한 통제가 서구의 쾌락주의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동성애 비판에도 서구 제국주의와 자국의 상층계급에 대한 냉소가 담겨있는 측면이 있다. 그 배경을 보면 중동지역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출신이거나 해당 국가의 상층계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³⁷⁾

V. ‘아랍의 봄’의 영향

현재 중동의 소수집단이 겪는 문제는 대개 탈식민화 이후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스만 제국이나 군주제 하에서는 이들이 지금처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예를 들어 이집트 콥트인들의 경우는 이전까지 다른 종교나 종족에 속한 사람들과 공존하던 집단이 근대국가에 의한 제도적 차별로 인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소수집단이 된 것이다. 이라크 역시 바트당 정권은 이전 군주제 시절에 비해 수니파를 우대함으로써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아랍의 봄은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고 이제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았던 주류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소수자들의 열망을 부추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³⁸⁾ 소수집단의 박탈감이 ‘아랍의 봄’의 주된 동인이었지만 이후 전개과정은 불행하게도

36) Massad, Joseph A., *Desiring Arab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37) 크로익스, 『계급, 소외, 차별』, 211쪽.

38) <https://www.brookings.edu/events/the-challenge-of-minority-rights-in-a-changing-arab-world/>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시아파와 수니파 등 집단 간 갈등이 폭력적인 상황을 띠는 결과를 낳았다. 이집트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콥트인들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무슬림들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탄압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은 아랍의 봄 직후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³⁹⁾ 특히 애스원에 있는 콥트교 교회 건물이 파괴된 것에 분노해 시위를 하던 콥트인들이 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어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중동지역 소수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끝나지 않는 내전이 종족 간의 대립의 양상을 띠면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아랍의 봄이 종족적 소수자인 시아파에 대한 박해를 초래했다. 예멘에서도 살레 대통령의 사임이 종족적 소수자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역사는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아랍의 봄의 부산물인 시리아 내전 이후 터키의 쿠르드인들이 점점 더 폭력적인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터키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강화되었고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진행되는 터키군의 군사개입 이후 반쿠르드 정서가 심화되었다. 반쿠르드 현상은 1990년대 터키 정부가 당시 쿠르드 지역의 주요 정치세력이었던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종족에 대한 혐오 현상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 등을 계기로 이제 이들을 향한 인종주의적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 노골화된 것이다.⁴⁰⁾

한편 중동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아랍의 봄 이후 이러한 현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혁명적인 사건들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가 정권에 의한 권력남용을 고발하고 대중의 발언권을 신장시키는 등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미디어의 새로운 움직임이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유지시키려는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언론인들이 종교나 종족 관련 혐오발언의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8월 튀니지 수도

39) <https://www.csce.gov/international-impact/events/minority-risk-coptic-christians-egypt>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40) <https://www.dw.com/en/kurds-in-turkey-increasingly-subject-to-violent-hate-crimes/a-50940046>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튀니스에서 열린 EU 후원의 혐오발언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비윤리적인 보도, 인종주의나 종교적인 극단주의, 라이브 방송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혐오발언을 활용한 사례, 정치인들이 TV나 SNS에서 경쟁세력을 겨냥한 극단적인 발언을 사용하는 현상, 타국에서 벌어지는 종족이나 종교 간 갈등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증오를 부추기는 경향 등이 지적되었다.⁴¹⁾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에는 민족, 인종, 종교와 관련된 차별, 혐오, 폭력 등에 맞서는 라바트 플랜(Rabat Plan of Action)이 UN의 지원을 받아 수립되기도 했다. 이 플랜은 특히 이 지역의 정부들이 국제법에 준해 혐오발언 법이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⁴²⁾

이렇게 아랍의 봄이 미디어의 변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지만 섹슈얼리티 이슈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인권 운동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⁴³⁾ 이집트의 군부 출신 알 시시 정권은 이슬람 세력과의 헤게모니 투쟁에 성소수자 문제를 이용하기도 한다. 성소수자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들도 종교세력 못지않게 이슬람 원리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역으로 아랍의 봄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들의 지위가 개선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아랍의 봄은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아랍세계의 운동에도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는 듯 보인다. 즉 성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주창하는 모든 시도가 이를 저지하는 시도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41) Mendel, Y. T., Momani, N., Ewedah, B., Bouchetob, S., *Addressing hate speech and racism in the media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 A review of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approaches*, EU Medmedia Report, 2018.

42) *ibid.*

43) Gorkemli, Serkan, “Coming Out of the Internet”: Lesbian and Gay Activism and the Internet as a “Digital Closet” in Turkey”,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Vol. 8, No. 3(2012), pp. 63-88.

44) El Feki, Shereen, “The Arab Bed Spring? Sexual rights in troubled time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productive Health*

이라크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지는 않지만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박해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동성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그런데 2020년 5월 이라크에서도 시위현장에서 무지개 깃발이 목격된 적이 있다. 이라크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일부가 행한 일이었는데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격렬히 항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외교관들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라크 성소수자 단체들도 반정부시위 때 무지개 깃발을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랍의 봄과 같은 저항운동으로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아랍의 봄이 빚겨간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반정부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밀경찰이나 무장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대중의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정부운동의 참여경험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시위대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성소수자 문제가 예전보다 많이 얘기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 한 성소수자 단체의 보고서는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주류 언론과 달리 온라인 매체 중 일부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⁴⁵⁾

VI. 버려진 코로나 시대의 소수자

소수자가 특히 재난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하듯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배제와 추방에 처한 국내외의 소수자들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재난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로 인해 다른 집단을 배려하는

Matter, Vol. 23, No. 46(2015), pp. 38-44.

45)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q-media-lgbt-coverage-hate-speech>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것이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재난을 소수자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동의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걸프만 산유국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해고와 추방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다시 사용했으며,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대책이 초래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일반 국민보다 난민이나 이주민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원유 생산이 감소하고 자국민의 취업을 늘리고자 외국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2백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동 산유국을 떠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고려하면 당분간 이러한 경향이 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⁴⁶⁾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체 주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우리도 힘든데 왜 외국인을 도와줘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건이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놓고 쿠웨이트인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1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쿠웨이트인으로 대체하고 12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15만 명의 미숙련노동자 등 37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⁴⁷⁾

보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⁴⁸⁾ 역으로 기존의

46) <https://www.ft.com/content/77c2d7db-0ade-4665-9cb8-c82b72c-2da66>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47)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00811-kuwait-readies-to-expel-370000-foreign-workers/>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48) <https://egyptianstreets.com/2020/04/15/in-the-wake-of-covid-19-egypts-asians-fall-victim-to-racism/>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이슬람혐오증이 코로나 사태의 산물인 희생양 전략과 결합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이 무슬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고 비방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힌두인들과 무슬림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랍 국가들에서도 일부 인도인들이 반이슬람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다.⁴⁹⁾ 그리고 이에 맞서 아랍 국가들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걸프만 거주 인도인들이 올리는 이슬람혐오 트윗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성소수자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고립과 격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가족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족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된 것이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치료 공백으로 인한 위협에 처해있기도 하다.

VII. 우리와 닮은 중동

이 글의 논의는 개괄적인 소개 성격의 글이라 중동지역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중동의 소수자들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편견, 유사한 차별과 폭력, 그리고 유사한 사건들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보편적인 중동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와 닮은, 비교가능한 점에 주목하게 되면 이질적으로만 보였던 중동 사회와의 교류의 채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에서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사회가 더 파편화됨에 따라 보다 통일적이고 동질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로 인해 소수자 논의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집단,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 간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집단의 권리 신장 및 통합의 방안으로 오스만 제국 시절에 적용되었던 밀레트 제도의 미덕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49) <https://www.aa.com.tr/en/asia-pacific/hate-tweets-by-indians-set-twitter-on-fire-in-gulf-/1815574>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소수집단의 정치적, 문화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⁵⁰⁾ 이제 성소수자나 이주민에게도 이 미덕이 적용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새로운 공존의 기제는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자유를 외쳤던 아랍의 봄의 동력과 연관지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om3597@hallym.ac.kr

주제어(key words):

중동(Middle East), 소수자(minority), 성소수자(sexual minority), 이주민 (immigrant), 증오(hatred)

(투고일: 2020.10.26, 심사일: 2020.11.14, 게재확정일: 2020.11.16)

50)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제도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선구적인 사례이다. 최근 서구사회의 이주민 집단에 적용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나 다문화주의와 유사하게 종교·종파나 종족에 정치적, 문화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오스만 제국의 관용성을 보여주고 제국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효과적인 통합기제로 평가되어왔다. 물론 기독교나 유대인 공동체, 시아파 공동체 등이 수니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는 못했다.

<국문초록>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

엄한진

중동지역에서도 성소수자나 이주민 문제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동의 소수자에 관한 지역 내외의 논의는 압도적으로 종교적, 종족적 소수집단의 문제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문제가 이슬람과 연관지어 강조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중동 소수자 논의의 구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난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성소수자 및 국제이주민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 소수자들의 현실 역시 한국 등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종족 및 종교 집단과 달리 성소수자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소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인 혐오발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제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수자 인권의 측면도 중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유럽이나 미국 역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소수자 담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제국주의의 한 기제라는 혐의를 받아 위축되기도 한다. 아랍의 봄을 계기로 중동에서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사회가 더 파편화됨에 따라 보다 통일적이고 동질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로 인해 소수자 논의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집단,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 간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Discourse on Minorities in Middle East, caught up in
Exceptionalism

Eom Han-Jin

The problem of sexual minorities and immigrants takes a crucial part in social conflict in the Middle East, but seems a strange subject to the outside world. Because religious and ethnic minority issues monopolize the debate on minorities in this region. In this context, the paper deals with the gap between reality and discourse in the domain of minority, and its historical and actual backgrounds, by introducing some symbolic events. Through this, we aim to emphasize the universal aspects of Middle Eastern societies. The weak interest in social minorities could be explained by some reasons such as a dilemma of liberty of expression vs. respect of diversity, imperialism within western discourse on sexual minority, etc.. The Arab spring produced a double result in this aspect. It acted as an opportunity of promoting the rights of minorities and also the yearning for a unified and homogeneous society. When considering this, the tendency of prioritizing the groups and group relations much than the individuals and their rights will not be easily overcome.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2011).
- 크로익스, 제프리 디스티 외, 『계급, 소외, 차별』 (서울: 책갈피, 2017).
- Castellino, Joshua and Kathleen A. Cavanaugh,, *Minority Rights in the Middle Eas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Massad, Joseph A., *Desiring Arab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2. 논문

- El Feki, Shereen, “The Arab Bed Spring? Sexual rights in troubled time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productive Health Matter*, Vol. 23, No. 46(2015).
- Equal Rights Trust, A Past Still Present: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Egypt*, The Equal Rights Trust Country Report Series 12, London, December 2018.
- Gorkemli, Serkan, “Coming Out of the Internet”: Lesbian and Gay Activism and the Internet as a “Digital Closet” in Turkey”,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Vol. 8, No. 3(2012).
- Ha, Hyun Jeong, “Emotions of the weak: violence and ethnic boundaries among Coptic Christians in Egypt“,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40, No. 1(2017).
- Joseph, Suad, “Sectarianism as Imagined Sociological Concept and as Imagined Social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0, No. 4(2008).
- Jureidini, Ray, *Migrant Workers and Xenophobia in the Middle Eas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Identities, Conflict and Cohesion Programme Paper No.2, December 2003.
- Kausch, Kristina, “Identity Politics and Regional Order in the Levant”, *Uluslararası İlişkiler*, Volume 15, No. 60(2018).
- Kumaraswamy, P. R., “Problems of Studying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Alternatives: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2, No.2,(2003).
- Masarat Foundation for cultural and Media Development, *Declaration of Baghdad To counter hate speech on Iraq and the Middle East*, 2016.
- Mendel, Y. T., Momani, N., Ewedah, B., Bouchetob, S., *Addressing hate speech and racism in the media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 A review of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approaches*, EU Medmedia Report, 2018.
- Peteet, Julie, “Imagining the ‘New Middle East’”,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0, No. 4(2008).
- Ze’evi, Dror, “Hiding Sexuality: The Disappearance of Sexual Discourse in the Late Ottoman Middle East”, *Social Analysis*, 49(2) (2005).

3. 웹사이트

- <https://76crimes.com/2020/08/07/pro-lgbtq-arab-firm-wins-israeli-support-against-boycott/>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 <https://cpj.org/2018/02/changes-to-jordans-hate-speech-law-could-further-s/>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 <https://egyptianstreets.com/2020/04/15/in-the-wake-of-covid-19-egypts-asians-fall-victim-to-racism/>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 https://en.wikipedia.org/wiki/2017%E2%80%932019_Iranian_

- protests_against_compulsory_hijab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resources/publications/saving-the-news/hate-speech-arab-media>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futureuae.com/en-US/Mainpage/Item/3292/mutual-hatred-incident-motives-against-syrian-asylum-in-the-middle-eas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events/hate-speech-saudi-arabia/>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voiceofsalam.com/2019/03/12/alouen-shares-the-reality-of-homophobia-across-algeri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972mag.com/lgbtq-palestinians-haifa-queer/>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https://www.aa.com.tr/en/asia-pacific/hate-tweets-by-indians-set-twitter-on-fire-in-gulf-/1815574>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www.brookings.edu/events/the-challenge-of-minority-rights-in-a-changing-arab-world/>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https://www.csce.gov/international-impact/events/minority-risk-coptic-christians-egypt>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https://www.dw.com/en/kurds-in-turkey-increasingly-subject-to-violent-hate-crimes/a-50940046>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https://www.ft.com/content/77c2d7db-0ade-4665-9cb8-c82b72c2da66>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decl_fs_92_en.pdf (검색일: 2020년 8월 15일)
<https://www.jacobinmag.com/2020/07/gulf-states-political-economy-saudi-arabia-qatar-uae>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gypt-lgbtq-activist-sarah-hegazi-suicide-trauma>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q-media-lgbt-coverage>

일본제국과 범아프리카주의의 ‘트랜스-퍼시픽’ 커넥션

hate-speech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00811-kuwait-readies-to-expel-370000-foreign-workers/>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https://www.nytimes.com/2020/07/15/world/middleeast/tahini-gay-israel-boycott.html> (검색일: 2020년 8월 12일)
<https://www.nytimes.com/2020/07/16/opinion/culture/mashrou-leila-fan-suicide.html>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6/10/18/middle-east-migrant-population-more-than-doubles-since-2005/> (검색일: 2020년 8월 12일)